

# 東洋医学과 獸医針医学(1)

徐斗錫\*

## 序 言

東洋医学은 우리民族의 悠久한 역사와 함께 伝授되어 온 医学으로서 針, 灸, 藥, 按摩 등의 技術을 医術로 응용하는 독특한 医学으로서 紀元前 數世紀부터 東洋에서 發祥한 民間医学이며 東洋에서 傳統的으로 常用되고 伝承되어 오는 過程에서 발전한 實踐医学이다.

起源은 古代 印度에서 釈迦와 거의 같은 時代에 耆婆라고 하는 名医가 創案하여 太古時代에 中国으로 伝授되고 周나라 時代와 秦나라 時代에 体系的으로 整理하였다는 說과 古代中国의 黄帝時代에 發祥하였다는 說이 있으나 確실한 發祥地는 不明이며 人体医学을 爲主로 伝承되었는데 이 医術을 家畜에 應用하기에 이른 것이 東洋獸医学의 發祥이므로 医学的인 發想과 技術은 人体医学에 追從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東洋医学은 陰陽學說과 虛實學說 및 五行學說 등의 東洋哲學이 主軸을 이룬 理論이기 때문에 西洋医学的인 知識으로 解明하기 어려운 點이 많으므로 納得할수 없는 部分이 적지 않음은 事實이나 施術하였을 때의 神秘스러운 效能은 客觀的으로 認定되고 있다.

陰陽學說에서 主張하는 陰과 陽이라고 하는것은 宇宙間的 万物을 理解하는데 있어서 極히 重

要함은 勿論이러니와 自然界와 生体内에 實際로 存在하고 그의 平衡을 유지하고 있음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러한 觀点에서 考察할때 數千年前에 陰과 陽이라고 하는 自体에 關한 發想이 시작되었다는 事實은 驚嘆을 禁할수 없다.

韓國에 있어서 長久한 歷史를 갖고 伝承되었던 東洋医学이 西洋医学에 밀리어 命脈마저 유지하기 어려웠던 수난끝에 다시 却光을 받아 全世界的으로 関心이 集中되고 西洋医学的인 方法과 公同으로 연구가 구상 또는 進行되고 있으며 獸医臨床에 應用하려는 意慾이 高潮되어 가고 있음은 極히 多幸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近來에 急進的으로 발전하는 獸医針医学을 중심해서 東洋医学에 關한 개요를 理論的으로 說明하고 實際獸医臨床에 應用할수 있는 針医学을 記述하여 東洋獸医学에 関心を 갖고 있는 諸賢께서 參考하심과 동시에 批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論述한다.

## 第1章 東洋医学 및 針医学

### 1. 針医学의 起源과 東洋医学

針医学書籍으로서 現存하는 最古의 原典인 黄帝内經은 假想的인 医神으로 推定되는 黄帝가 그의 臣下인 6名의 医術師와 問答을 記錄한 古代의 医学書이다. 黄帝内經은 素問과 灵樞의 二部로 編輯되었는데 一部는 生理, 病理, 病因 등

\* 全南大学校 農科大学 獸医学科

의 基礎醫學部門과 攝生 및 養生을 주로 記述한 것인데 이것이 素問編이고, 二部는 解剖, 生理, 經絡, 針治療 등을 記述한 것으로서 靈·樞이라고 하며 靈樞를 黃帝鍼經 또는 鍼(針)經이라고도 한다. 黃帝內經은 이 외에도 太素와 明堂으로 分類되었다.

黃帝內經의 素問異法方宜論에 의하면 砭石東方來 毒藥西方來 灸炳北方來 九鍼南方來 導引按蹻中央出이라고 記述하였다. 즉 砭石은 東方에서 오고 毒藥은 西方에서 왔으며 靈樞는 北方에서 왔고 九鍼은 南方에서 왔으며 導引按蹻는 中央에서 왔다는 句節이다. 黃帝가, 医者가 동일한 病을 治療할때 方法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病이 治療되는 이유를 質問한데 대한 答변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東方은 天地中에서 처음 생긴 곳이니 물고기와 소금이 많은 땅이며 바다에 가까우므로 그 백성은 물고기를 먹고 잔 것을 즐겨 먹으니 좋은 것을 먹고 편안하다. 물고기는 사람에게 熱을 공급하고 소금은 血을 좋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皮膚色이 검고 病은 癰瘍인 故로 砭石이 마땅한 것이므로 砭石은 東方에서 온것이라고 대답하였다. 西方은 金과 玉이 있는 砂石이 있는 곳이므로 天地가 吸引한 곳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언덕에서 살고 있으니 바람이 심하고 水土가 굳었으므로 털옷을 입지 않고 飲食物이 좋아서 살이 찌는 故로 邪가 그들의 몸을 傷하지 못하나 病이 몸속에서 생기기 때문에 毒藥으로 다스려야 하므로 毒藥이 西方에서 온것이다. 北方은 天地가 閉藏한 地域이니 그 땅은 언덕이 높고 바람이 寒冷하므로 水가 심하게 얼고 그 백성들은 乳食을 즐기니 臟이 傷하며 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灸灼으로 다스려야 하므로 灸灼는 北方에서 온것이다. 南方은 天地中에서 太陽이 가장 긴 곳이며 太陽熱이 가장 盛한 곳이기 때문에 그 熱이 땅으로 내려가 水土는 약하고 안개와 이슬이 모이는 곳이므로 그 백성들은 酸을 즐겨먹고 補의 飲食을 먹기 때문에 體表面에 血行障害가 생기기 쉽고 皮膚가 붉은 빛을 지녔으며 手足에

麻痺 또는 瘰癧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體表面에서 針治療를 하였으므로 針治療는 南에서 온것이다. 中央地帶는 그 땅이 平原하여 天地中의 萬物이 蘇生한 곳이므로 그 백성들의 飲食物은 離物이며 勞動을 안하기 때문에 그들의 病은 痿厥과 寒熱이 많아 導引按蹻로 다스려야 하는 故로 導引按蹻는 中央에서 온것이라고 대답하였다. 以上과 같이 記錄된 內容을 考察하면 東洋醫學은 黃帝時代에 發祥(自生)한 것이 아니고 그 以前에 이미 發祥한것을 黃帝時代에 外部로부터 導入해서 記錄한 것임을 示唆하는 것이라고 思料된다.

東洋醫學은 東洋哲學에서 發祥하고 體系化하였음을 共認하면서 東洋醫學發祥에 對하여 仔細한 根據을 다음과 같이 考察한다.

#### 1) 黃河文化圈의 發祥과 針醫學

東洋醫學은 地域과 部族에 따르는 生活環境에 의해서 특징적으로 醫術이 발달하였으며 呪術系統과 蕩藥系統 및 手技系統의 三大要素가 있다.

黃帝內經素問編의 異法方宜論編에 의하면 東方의 海邊에 位置하여 漁業을 生業으로 하고 魚와 鹽을 多食하기 때문에 皮膚病이 많으므로 그의 對策으로서 砭石(石器時代의 銳利한 石製器具)를 사용하는 外科의 治療法 즉 手技系統이 발달하였다고 한다. 西方은 不毛의 山岳地帶이기 때문에 狩獵이나 鉦業을 主生業으로 生活하고 氣候의 變化가 심하므로 厚衣美食하기 때문에 內臟疾患이 많아 毒藥을 사용해서 治療하는 醫術이 시작되었으며 北方은 高原이며 氣候가 寒冷하고 住民이 遊牧生活하므로 乳肉을 主食으로 生活하기 때문에 血血로 인한 疾患이 많아 灸炳(熱刺戟療法)이 발달되었으며 灸療法은 北方에서 시작되었다고 記述하였다. 南方은 濕氣가 많은 平野地帶이므로 農耕을 生業으로하고 高温多濕하며 穀物을 主食으로 生活하기 때문에 血行障害로 인한 筋脈의 질환이 많아 微針(가늘은 金屬針의 刺入療法)이 必要하였으므로 針治療는 南方에서 發祥한것 이라고 記述하였으며, 中央

地方은 交通이 편리한 平原이고 濕氣가 많아 聚落을 형성하고 生活하므로 精神勞動은 많았으나 運動不足으로 인한 四肢의 貪血과 萎縮이 많기 때문에 按摩術이 自生하고 發達하였다고 記述하였다.

以上과 같은 記述은 各地域에 따르는 治療法을 무리하게 配合해서 說明한 것이라고 認定할 수도 있으나 藥物療法이 西方에서 發祥하였다는 說은 神農傳說과 관계가 있고 微針治療法이 南方에서 發祥하였다는 說은 鐵器文化의 傳播에 의해서 金屬性針이 南部地方에서 만들어 졌음을 暗示한 것이라고 推定된다.

黃河文化圈을 形成한 種族의 先祖가 遊牧民이었고 氣候의 變化가 심한 不毛地에서 遊牧生活하였으므로 藥이 될수있는 植物을 求得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生活必須品도 極히 簡便하였을 것으로 推定되므로 疾病治療 역시 簡便한 생활 필수품을 이용해서 簡便한 方法으로 施術하였을 것이라고 推定된다. 따라서 衣服은 동물의 皮毛를 사용해서 簡便하게 만들어 걸치는 정도로 입었겠지만 氣候의 變化가 심한 地帶이기 때문에 衣服을 벗기고 治療할수 없었을 것이므로 頭部와 四肢 등의 노출된 부위에 각종 石器 또는 骨器를 사용해서 刺戟하였거나 出血 또는 膿을 제거하기 위한 觀血治療와 火熱을 加하였으리라고 推定되는데 古代中國의 遊牧種族이 施術한 重要한 治療點과 特수한 反應點, 즉 經穴이 衣服을 입어도 노출되기 쉬운 頭部와 四肢의 末端에 많은 것은 現代의 針醫學과 共通性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過程을 겪은 다음에 많은 經驗이 長久한 才月을 經過하는 동안에 集積되어 身體의 特정한 부위에서 刺戟點을 찾아 낼수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의 經穴을 發見할수 있었는데 主要因이 되었다고 思料된다.

以上과 같이 經驗에 經驗을 쌓는 過程에 文明이 발달함에 따라서 細小한 金屬性針을 사용하게 되었고 金屬性針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에 得氣(針感)라고 하는 特異한 反應을 發見하게 되었으며 이것에 의하여 經絡을 認識하게 되었는데

이 經絡을 認識할수 있게 된것이야 말로 黃河文化圈醫學에 있어서 最大의 金字塔이 있으며 이것이 後世에 成立된 經絡經穴說이라고 하는 東洋醫學의 理論이 現代의 針醫學의 根幹을 構成할수 있게 된것이 라고 思料된다. 前述한바와 같이 黃河文化圈을 형성한 種族의 先祖는 氣候의 變化가 심한 不毛地帶에서 牧草를 찾아서 이동하는 遊牧民이 있으며 그들의 衣복은 동물의 毛皮이 있으므로 變化가 심한 기후에서는 裸體狀態로 加療하는 醫療의 체계가 發見할수 없는 要素이었기 때문에 頭部 또는 四肢 등의 노출된 부위에 예리한 石器 또는 骨器를 사용해서 자극하였거나 切開手術하는 등의 方法을 應用하였으며 皮膚에 火熱을 加하는 火針治療 등의 經驗이 數十世記동안에 걸쳐서 蓄積되어 特정한 부위에서 자극에 대한 感度가 過敏함을 發見할수 있었는데 이것이 現代의 經穴이다. 이와 같은 過程을 經過하는 동안에 金屬文化時代로 變遷하여 金屬性針을 刺戟을 加하는 器具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針을 刺入함으로 인해서 發生하는 疼痛 또는 異常感覺의 放散이 身體의 特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發見하고 그의 走行路에 따르는 經穴을 系統的으로 分析한 結果에 의하여 經穴이 몇개의 系統이 있음을 認識할수 있었는데 이것이 現代의 經絡이다.

## 2) 黃河文化圈의 發生과 陰陽學說 및 五行學說

遊牧種族은 日常生活이 自然으로 부터 危脅을 받기 때문에 自然現象에 敏感하여 天體의 運行과 季節의 變化에 대한 知識이 오랜 經驗에 의하여 豊富하므로 自然과 生體와의 關係性을 考察할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였고 이것이 進展되어 自然哲學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한다.

中國의 春秋戰國時代에 黃河文化圈에서 發生한 自然哲學은 自然現狀과 人體의 生命現象과의 相互關係를 論證하고 大宇宙와 小宇宙와의 對比를 說明하는 天人合一說로 부터 전개하기 시작하여 萬物을 相反되는 두가지 要素의 立場에서

認識하는 陰陽學說로 발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모든 現象을 五要素(木, 火, 土, 金, 水)의 連鎖的인 相對에 의한 質의 平衡으로 論證하는 五行學說이 發祥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黃河文化圈의 醫學理論은 自然哲學을 背景으로 해서 더욱 강화되어 漢代에 이르러서 黃帝內經이라고 하는 醫書가 著述되어 오늘까지 傳承되었고 黃帝內經은 現代에도 東洋醫學을 工夫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基本文獻으로 位置를 굳히게 되어 東洋醫學教育에 있어서 教科書的인 貢獻을 하게 되었다.

黃帝內經의 靈樞論은 前述한 바와 같이 주로 針灸醫學에 관한 문제를 기술하였기 때문에 鍼(針)經이라고도 하는데 針灸治療法을 施術하기 위한 適應症의 診斷과 實際臨床의 手技에 대해서 說明한 醫學書籍으로서 現代에도 널리 응용되고 있으며 黃帝內經의 主軸은 天人合一과 陰陽學說과 五行學說의 思想을 基礎로 해서 著述한 醫書이다.

素問編은 生命觀과 疾病觀에 대해서는 体系的으로 論述되었으나 모순된 부분도 적지 않아 納得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黃帝內經이 完成될 때 까지의 經過 등을 考慮할 때 理解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思料된다.

古代中國의 自然思想은 모든 事物의 現象을 陰과 陽의 두가지 要素로 分類해서 理論을 전개하고 黃帝內經의 醫學思想은 後世에 直觀과 觀察, 總合과 統一 및 分類라고 하는 科學思想을 誕生시킨 黃河文化圈의 醫學으로 발전되었으며 解釋하는 手段으로서 天人合一과 陰陽五行이라고 하는 觀念論으로 발전하였다고 考察할 수도 있다. 즉 陰陽論은 宇宙萬象은 陰과 陽의 二元的인 變化에 의해서 생긴다는 自然觀이며 陰과 陽은 天, 地, 晝, 夜, 寒, 暑, 男, 女 등의 對立的인 關係에서 歸納的으로 想像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陰과 陽에는 變轉하는 相이 對應하는 것과 分化하는 相에 對應하는 두가지의 相이 있기 때문에 分化의 相에 대해서는 陰陽一元論으로 對應하고 있으며 그의 現象으로서의 陰

과 陽은 變轉과 分化의 두가지로 分類되어 있다.

變轉의 相으로서의 陰과 陽은 脈의 陰陽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脈이 떠(浮)있는 狀態를 陽이라 하고 가라앉은(沈)상태를 陰이라고 한다. 그러나 宇宙의 多樣的 現象을 分類하는 原理는 陰과 陽의 두가지 相 만으로는 不充分하기 때문에 陰을 太陰, 少陰, 厥陰의 세가지 相으로 細分하고 陽을 太陽, 陽明, 少陽의 세가지 相으로 細分하여 三陰三陽의 二因子分類法도 應用한 學問이다.

分化의 相으로서의 陰과 陽은 人體의 上下에 대하여 上半身을 陽이라 하고 下半身을 陰이라 하며 背部를 陽이라 하고 腹部를 陰이라고 하였으며 皮膚는 陽이고 體腔의 粘膜은 陰이라고 하였으며 肝, 心, 脾, 肺, 腎, 心包 등의 五臟을 陰이라고 하였고 胆, 小腸, 大腸, 胃, 膀胱, 三焦(上焦, 中焦, 下焦를 합해서 三焦이라고 하는데 上焦는 上部呼吸器, 中焦는 消化器, 下焦는 泌尿生殖기를 말함) 등의 六腑를 陽이라고 하였다.

東洋醫學의 體系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크게 미친것은 陰陽學說과 五行學說이다. 黃帝內經의 素問編에 記述한 陰陽應象大論의 第五에 東西南北과 中央의 다섯가지 方向을 配列하고 五行論을 論述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든 事物의 現象(事象)이 千差萬別인 것과 같이 「現象의 宇宙」의 背後에는 약간의 基本單元이 있는 것으로 思料되는데 이것에 의하여 現實의 差別相이 된다는 思想이나 이 思想은 古代社會로 부터 人類의 思想속에 存在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哲學思想으로서의 五行學說의 性格은 木, 火, 土, 金, 水 이 다섯가지의 單元이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循環交代한다는 思想을 바탕으로 構成된 것이다. 이 다섯가지의 單元이 最初에 어떠한 經路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었느냐에 관해서는 여러종류의 假說이 있으나 지금도 有力한 說明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다섯가지의 單元은 科學的인 根據에 의하여 선정된 것이 아니

고 無數히 存在하는 自然界의 構成物質 속에서 生活과 不可缺하게 중요한 것을 探求한 結果에 의해서 認識된 것이라고 考察된다.

五行學說에 있어서 五行이 循環한다는 順序가 二種類의 形式으로 想定되었는데 그의 하나는 戰國時代에 齊의 鄒術이 記述한 相剋의 關係로서 五行의 循環은 水는 火를 이긴다는 式으로 火, 水, 土, 木, 金의 순서로 進행된다는 理論이고 또 하나는 鄒術이 主張한 後 數世記가 經過한 다음인 前漢時代의 中期에 提晶되었던 相生의 關係인데 이 說은 木은 火를 낳게(生)하고 土는 金을 낳(生)는 다는 理論으로서 이와 같은 循環이 木, 火, 土, 金, 水의 순서로 전개된다는 學說이다. 그러나 相生의 正循環의 關係가 相剋의 反循環의 關係로 전환되는 原理에 대한 說明이 없는 것으로 안다.

黃帝內經의 素問編에 五行學說의 思想이 初章에 간단하게 記述되었으나 蕩液醫學의 原典이라고 할수있는 傷寒論과 金匱要略에는 陰陽學說에 관한 思想이 깊이 浸透되어 있으나 五行學說의 思想은 介入되지 않은 點으로 보아 五行學說은 中代中國人들도 異質的인 것으로 受容한 것이라고도 思料된다.

### 3) 揚子江文化圈의 發生과 藥學

揚子江文化圈에서 발생한 醫術은 自然物을 이용하는 藥物療法이 主軸을 이루었으나 環境과 部族의 性格에 支配되어 주로 不老長壽 輕身延年을 理想으로 追求하였으며 疾病治療는 二次的인 이었던 것으로 思料된다.

黃帝內經素問編의 異法方宜論이 傳承되어 온 것 같이 古代中國人들은 처음에는 揚子江上流의 奧地에서 氣候의 變化가 심한 不毛의 山岳地帶에서 狩獵 또는 寶石採掘을 主業으로 生活하였으나 점차 揚子江流域의 肥沃한 지대로 진출하게 되었고 生活慣習이 변화되어 農耕을 生業으로 하는 상태에서 정착하였기 때문에 이 種族은 傳說의 人物인 炎帝神農을 生活技術의 創始者로 信仰하고 最初로 藥草를 발견한 理想的인 帝王이라고 信仰하면서 神格化한 사실은 黃河文

化圈에서의 黃帝와 類似하다고 認定된다.

揚子江文化圈의 醫學은 여러 각도에서 考察할때 炎帝神農과 깊은 關係가 있는 것으로 思料되며 揚子江文化圈의 醫療古典으로서 神農本草經이라고 하는 古醫書가 現存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神農이라고 하는 名稱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黃河文化圈의 黃帝內經과 神農本草經의 類似한 점이라고 考察된다.

古代부터 民間人들의 經驗에 의하여 藥物의 效能을 지니고 있는 自然物을 探求한 揚子江文化圈의 種族이 醫療의 藥物의 效能을 神秘的인 像으로 表現하고 慾望을 만족하기 위해서 自然物을 探求한 痕跡은 山海經을 檢討하여도 認定할수 있다. 즉 山海經의 內容으로 보아 山海經은 戰國時代에 著述한 것으로 思料되는데 身體에 接着시켜서 藥效를 얻을수 있는 藥草가 29종류이고 內服해서 藥效를 얻을수 있는 藥草가 68종류라고 하였으며 其他의 方法으로 사용해서 藥效를 얻을수 있는 藥草가 55종류라고 記述되어 있으나 山海經에서 體力增強 또는 不老長壽의 效能이 있는 것으로 지적한 自然物의 대부분의 藥物이 抽象的인 物質이기 때문에 이의 모순된 現實과 理想을 관련시키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經驗을 根幹으로하여 自然物의 效能을 分類하기 위해서 採択한 方法이 外觀적으로 判別하기 쉬운 色採, 形態, 香氣, 味 등을 基本的으로 連想하는 象形藥能論이었다. 즉 붉은 色의 毒을 발견하면 色感을 連想해서 貪血에 사용하면 붉은 血液에 補가 되리라 예상하고 투여하였을때 예상했던 바와 같이 貪血을 治療할수 있었던 것이 하나의 例라고 할수 있으며, 붉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草의 뿌리를 캐어서 보면 뿌리가 갈라진 形象이 사람의 裸體形象을 닮고 있기 때문에 神秘스럽게 생각되어 體力이 약한 사람에게 投與한 結果 예상하였던 바와 같이 活力이 좋아졌다고 하는 人蔘도 이 例의 하나일 것이다. 秦始皇帝가 不老長壽의 神藥을 探求하기 위하여 金剛山과 漢拏山 또는 智異山 등에 많은 臣下를 派送하였다는 우리나라의 神話的인 傳說

도 揚子江文化圈의 藥學과 관련있는 것이라고 考察되며 古代韓國의 醫學은 揚子江文化圈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推定된다.

#### 4) 江南文化圈의 發生과 經驗醫學

江南文化圈의 醫學에 관한 起源은 확실하지 않으나 殷나라의 宰相이었던 伊尹이 創始했다고 傳해 오는 蕩液系統에 屬하는 것이라고 思料된다. 揚子江文化圈의 藥物과 같이 自然物中에서 神秘的인 藥効를 기대하는 思想과 相反되어 生活周邊에서 쉽게 얻을수 있는 藥物을 적절하게 配合해서 總合的으로 相乘的인 效果를 발휘할수 있는 方法으로 발전한 點이 특징적인 醫學이라고 考察할수 있다.

江南地方은 地域的으로 高温多湿하기 때문에 流行病이 발생하기 쉬운 環境이므로 이 地方의 種族은 순수하게 醫療的인 藥物療法에 置重해서 傳承된 것이라고 思料된다. 즉 急性傳染病의 共通된 症候群에 대해서 한 종류의 藥物로서는 그의 効能이 의심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藥物을 혼합해서 투여하고 그의 總合作用을 기대하면서 투여한 醫術을 長久한 才月에 걸쳐서 蓄積된 경

험을 정리하여 一定한 藥物을 配合하는 処方과 그것을 응용하는 조건의 원칙을 探求한 결과 “証”이라고 하는 根本概念을 成立시킬수 있었다고 한다.

江南文化圈醫學에 관한 文獻은 傷寒雜病論이 代表的인 醫書인데 이 古典은 漢代에 體系化하고 完成된 것이라고 한다. 傷寒雜病論은 傷寒論과 金匱要略이 現存하고 있는데 이 醫書의 內容은 高度의 臨床治療體系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實用的이므로 自然思想이나 神秘思想이 內包되어 있지않고 순수하게 醫療的이며 實用性이 豊富하고, 高度의 理論을 展開하지 않았으며 醫療的인 원칙을 指示하는 內容이기 때문에 黃帝內經이나 神農本草經과 비교검토하면 외관적으로 是 빈약한 감이 있으나 臨床的인 面은 월등하게 충실한 醫書라는 評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江南文化圈의 醫書인 傷寒雜病論을 蕩液의 聖典이라고도 하며 그의 方法論이 近世까지 傳承되었으며 中國에서는 東洋醫學으로서의 單獨的인 主流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韓國과 日本등 地에서 漢方이라고 하는 名稱으로 東洋醫學의 主流的인 役割을 하면서 오늘까지 繼承되었다.

— 다음호 계속 —